The LEET BIBLE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TLB

FINAL ROUND 2025

2025학년도 기출문제 철저분석 **추리논증**

Urban Culture Lab

The LEET BIBLE™

FINAL ROUND

제목	The LEET BIBLE Final Round 2025 추리논증
발행일	2025년 4월 14일 초판 1쇄
개정일	2025년 11월 28일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쳐랩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대우도씨에빛2 1동 1514호 (서초동)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39,800원
ISBN	979-11-988899-2-8(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The LEET BIBLE의 **집필 방향**

The LEET BIBLE 초판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과 제안들은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덕분에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명 방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

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Final Round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이제 Final Round를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은 LEET 준비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LEET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이 본 교재를 보신다면, 최신 기출문제를 바로 다루어보시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같음은 잘 이해하지만, Principle 등 더 앞단으로 돌아가셔서 LEET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향을 학습하신 뒤 본 교재를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다른 변수들이 추가됩니다. 실제 시험 시간의 제한이라는 변수, 낯선 환경에서 높은 긴장감과 제약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변수,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변수 등이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변수 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끔 **각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 접근방법 등 전체적인 시험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 또한 제대로 수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단순히 문제의 해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LEET문제를 접했을 때 과연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즉, 실전 연습으로 Full Set로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배우면서 "시험장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행하는 것" 단계를 연습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문제 풀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부터 각 문제를 학습 이후 혼자 정리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등까지 폭넓게 커버합니다.

마치 LEET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마음으로 본 교재를 학습하시어, 앞선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 훈련했던 LEET의 기초를 마음껏 발휘해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여러분만의 LEET 접근법을 다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LEET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EET 성적은 신이 내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수험생의 도전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통념**입니다. The LEET BIBLE은 이러한 막연한 속설을 넘어, 수험생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해 드렸던 방법론을 본 교재에서 다루는 최신 기출문제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LEET 점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다른 교재에서도 강조드렸듯 LEET는 지식형 시험이 아닌 적성형 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만약 본 교재로 최신 기출문제 풀 세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특정 유형, 특정 제시문에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지점을 앞선 교재로 돌아가 보충하시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값진 도전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향한 여정에 본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SAMPLE SAMPLE SAMPLE SAMPLE

시작하기에 앞서

The LEET BIBLE Final Round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 Final Round 교재는 커리큘럼의 가장 마지막 교재로, 한 해의 전체 기출문제를 리트바이블 방식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방법들을 토대로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순히 원리나 접근방식을 넘어서 시험장에서 행해야 하는 실전적 대응 방법도 같이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야 하는 점은, 기출문제를 완전히 학습하고 제시문과 문제풀이를 다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아닌, 극도의 긴장감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훈련을 하는 데 모든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Final Round 교재에서는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Tip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1 FINAL 행동강령

FINAL 행동강령

앞서 The LEET BIBLE의 LEET Tips와 유사한 형태이나, Final Round에서 드리는 팁은 "행동강령", 즉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앞선 리트바이블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계속해서 훈련해 오셨다면, FINAL 행동강령에서 의미하시는 바가 더 확실히 와닿을 것입니다.

2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사후적 분석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분석

첫 번째 제시문을 읽을 때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오히려 이를 대비하여 연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사실일치 문제의 선지를 최대한 읽어...

LEET 실전 전략 / 사후적 분석

1번 문제는 전형적인 대응형 문제로서 남들보다는 시간을 줄이면서 풀며 동시에 맞혔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2분 30초 내지 2분에서 풀어 시간을 1분 정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험 운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6분 걸린 분이 많았습니다...

Final Round에서만 보실 수 있는 LEET 실전 전략 코너로,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분석 두 파트로 나뉩니다. 사전적 분석은 해당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사고방식이나 전략에 대해 논하고, 사후적 분석은 해당 문제를 다 마친 다음에서의 총론 및 추가적인 코멘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과목이나 문제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다

SAMPLE SAMPLE SAMPLE

CONTENTS

CHAPTER 01 | Final Round 사용설명서 9

1. Final Round 집필 의도 11
2. 시험장에서의 실전 행동방식 13

CHAPTER 02 | 2025 추리논증 문제풀이 16

1. 1~5번 문제 18
2. 6~10번 문제 43
3. 11~15번 문제 71
4. 16~20번 문제 99
5. 21~25번 문제 123
6. 26~30번 문제 149
7. 31~40번 문제 (33~35 생략) 174

CHAPTER 03 | 2025 추리논증 문제풀이 (논리게임) 214

1. 33번 문제 216
2. 34번 문제 224
3. 35번 문제 230

정답지 238

SAMPLE

CHAPTER

01

Final Round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

드디어 Final Round.
여러분이 지금까지
갈고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실 차례입니다.

제 1 장

Final Round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1 Final Round의 집필 의도

그동안 The LEET BIBLE 시리즈를 통해 쌓아온 LEET 학습의 노하우와 전략을 집대성하여, 수험생 여러분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로서의 새로운 해설서를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The LEET BIBLE 시리즈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Final Round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LEET 학습에 필요한 모든 사고과정을 담고자 하려는 시도입니다.

The LEET BIBLE Final Round 2025에는 2025학년도 최신 기출문제 중 언어이해 30문제와 추리논증 40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및 접근법을 담았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어떻게 실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수험생 입장에서의 접근입니다. 기존의 The LEET BIBLE의 모든 시리즈도 그러하였으나, 더욱이 이 책은 실전적 접근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정답이 왜 도출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의 흐름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핵심 원리와 기술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 LEET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보다, 지금의 로스쿨 입시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높아진 난이도를 바탕으로 한 경향을 짚어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제시문을 완벽하게 독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독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되, 전체적인 흐름은 놓치지 않도록 독해 과정을 조절할 것을 Principle(상), (하)를 통하여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제시문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문제풀이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시험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시문 독해 과정에서는 목차 설정과 중요 문장 표시에 주력할 것을 권했습니다. 수년간의 기출 분석을 통해 빈출 선지로 등장하는 유형의 문장이나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 문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이를 토대로 독해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제 풀이 시에는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해 둔 행동 강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LEET 시험을 준비했고, 특히 언어이해 영역에서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출 분석과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 경향을 꿰뚫어 보는 한편, 본 시험에서는 평소 세워 두었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침착하게 문제에 접근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저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The LEET BIBLE Final Round는 여러분이 막연한 두려움 없이 LEET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한편,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 학습 전략을 통해 실전에서의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소 험난해 보이는 LEET 정복의 여정에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책과 함께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실력이 눈부시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02

2025 추리논증 문제풀이



The LEET BIBLE™

“

2025학년도 추리논증 문제는
출제 형식과 지문 구성, 문항 유형 및
논리 전개 방식이 기존의
반복 출제 패턴을 충실히 따르며
사실상 안정화되었습니다.

낯선 접근을 요구하는 변칙은
없었기에, 지금까지 배우신
리트바이블의 핵심 원리와
문제 해결 전략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했습니다.

2025학년도 추리논증 1번

제한시간 3분 30초

1.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의무복무제를 운영하는 X국의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사병은 3년, 부사관은 7년, 장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X국 국회에는 부사관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사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다음은 이를 둘러싼 갑과 을의 논쟁이다.

갑 : 나는 개정안에 반대해. 장교나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사병보다 긴 이유는 이들이 그 계급에 맞는 직무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의 비용으로 장기간 훈련을 거쳐서 임용되기 때문이야. 예컨대 공군 조종사나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부사관은 고가의 전문 장비에 대한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해. 지금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가 장교와 부사관의 직무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야.

을 : 나는 생각이 달라. 장교와 부사관의 의무복무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성격과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실현하는 성격이 모두 있어. 사병과 같은 3년의 기간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성격이 더 강하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은 직업활동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 3년을 넘어 복무하게 하는 것은 장교와 부사관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아.

<보 기>

ㄱ. 정보기술의 발달로 군의 자동화 및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예전보다 대폭 절감되었다면, 갑의 견해는 약화된다.

ㄴ. X국의 「병역법」에 따르면 의무복무의 이행방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병, 부사관, 장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장교와 부사관은 지원자 중 적격자만 선발된다는 사실은 을의 견해를 강화한다.

ㄷ.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한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X국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다면, 갑의 견해는 강화되고 을의 견해는 약화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분석

전형적인 의견 대립에 대한 사실일치 또는 강화약화를 물어보는 대응형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을 때에는 항상, 차원의 구획, A 차원과 ~A 차원에 대한 구분, 관계의 설정 여부 확인 등과 같이 자신의 사고 패턴을 항상 똑같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1문단]
의무복무제를 운영하는 **X국의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사병은 3년**, 부사관은 7년, **장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상위 차원의 쟁점 제시] 최근 X국 국회에는** 부사관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사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다음은** 이를 둘러싼 **갑과 을의 논쟁이다**.

이 글의 핵심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사관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과 사병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를 같은 차원으로 구획할 수 있는지, 같은 차원으로 구획할 수 없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다면 의무복무기간을 사병과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개정안에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을 차별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갑 : **나는** 개정안에 **반대해**. **장교나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사병보다 긴 이유는** 이들이 **그 계급에 맞는** 직무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의 비용으로 **장기간 훈련을 거쳐서** 임용되기 **때문이야**. **예컨대** 공군 조종사나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부사관은 **고가의 전문장비에 대한**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해**. **지금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가 **장교와 부사관의** 직무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야**.

갑의 입장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병과는 다른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고가의 장비와 전문성을 위해 장기간 훈련을 받는데, 현재 의무복무기간은 이러한 투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활용 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의 비용'으로 훈련을 거쳐 임용되기 때문에, 개정안(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을 : **나는 생각이 달라**. **장교와 부사관의** 의무복무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성격과**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실현하는 성격이** 모두 있어. **사병과 같은** 3년의 기간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성격이 **더 강하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은** 직업활동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 **3년을 넘어** 복무하게 **하는 것은** 장교와 부사관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아**.

을의 입장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갑의 관계와 명확하게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차원입니다. 을에 따르면 의무복무에는 "국방의 의무" 성격과 "직업의 자유" 성격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이때, 3년까지는 국방의 의무 차원, 그 이상은 직업활동 성격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3년	3년 초과 기간
국방의 의무	직업활동 성격

갑은 하나로 퉁쳐서 전체를 하나의 성격으로 봤다면, 을의 경우에는 전체와 일부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을에 따르면 3년 이상 복무는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을은 개정안(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합니다.

ㄱ. **정보기술의 발달로** 군의 자동화 및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예전보다** 대폭 **절감되었다면**, 갑의 견해는 **약화된다**.

ㄱ 선지와 갑 주장 간의 관계 설정을 먼저 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겠습니다. 갑은 "장교와 부사관은 전문역량 습득에 장기간 훈련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의무복무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선지의 진술처럼 기술 발달로 훈련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다면, 갑이 주장하는 "장기간 복무의 필요성"이라는 전제가 약화됩니다. 장기간의 복무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 발달은 (장기간 훈련-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갑의 주장에 대한 반대 차원(시간과 비용 절감)을 형성하므로 갑의 견해는 약화됩니다. 따라서 ㄱ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ㄴ. **X국의 「병역법」에 따르면** 의무복무의 **이행방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병, 부사관, 장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장교와 부사관은 **지원자 중 적격자만** 선발된다는 사실은 **을의 견해를** 강화한다.

을은 "장교와 부사관의 3년 초과 복무는 직업 활동 성격이 강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3년 초과 차원에 대해서 별도의 차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선지에서는 이때 자발적 선택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관계를 설정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라면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를 알고도 선택했는데, 어떻게 침해 차원으로 구획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절대 강화 차원에 해당할 수는 없는 진술입니다.

강화·약화 문제를 풀 때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지점은 "어떻게 해야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을의 견해를 강화하려면 어떤 진술을 가지고 와야 할까요? 3년 이상 복무는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진술과 관계된 정보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무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정보 역시 강화 방법과 어떠한 관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ㄴ은 틀린 선지였습니다.

ㄷ.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한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X국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다면**, 갑의 견해는 **강화되고** 을의 견해는 **약화된다**.

ㄷ 선지 역시 동일합니다. 항상 관계의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갑과 을의 논쟁은 "부사관과 장교의 복무기간"을 사병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갑과 을 모두 "사병의 3년 복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도 논쟁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ㄷ 선지에서 새롭게 제시된 사병의 복무기간 3년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단은 갑과 을의 논쟁(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 단축)과는 그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입니다. 갑과 을의 견해 어느 쪽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논쟁과는 무관한 대상을 가지고 와서,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진술한 선지였습니다. 따라서 ㄷ은 틀린 선지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LEET 실전 전략 / 사후적 분석

전형적인 강화·약화 문제에서 출현하는 관계의 설정 유무를 먼저 따져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진술을 대할 때, 그 정오 판단에 함몰되기 이전에, 항상 관계의 유무를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